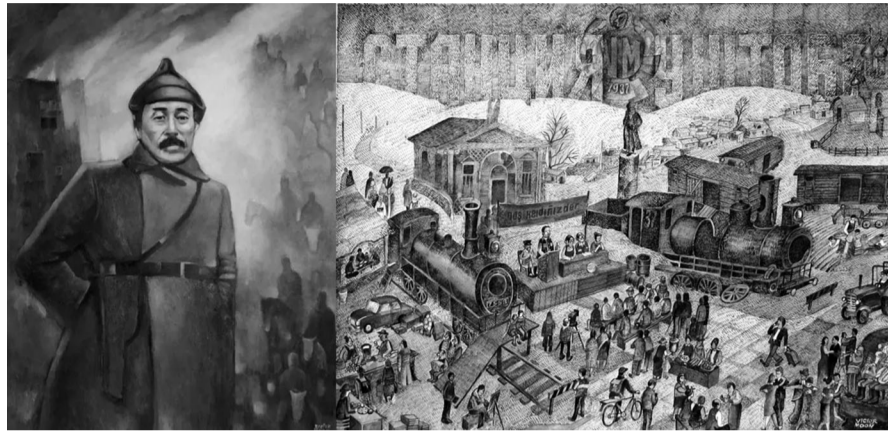


# “남은 생애 조국서 화법 전승하며 살고 싶어”

카자흐스탄 고려인 화가 문 빅토르씨  
1989년부터 한국과 인연 이어가  
선조들의 땅에서 생활 너무나 행복  
고려인마을 문 화백 미술관 등 추진



카자흐스탄 대표 고려인 화가 문빅토르씨가 광주에 기증한 자신의 대표작들. 흥범도 장군 초상화(왼쪽), 1937년 강제이주를 그린 '환영식'.

카자흐스탄 대통령궁·국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전시된 미술계 거장이 한국을 찾아 후임 양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1863년 구 소련땅에 이주한 고려인 후손 문빅토르(72)씨 이야기다.

그는 '조국에서의 화법 전승은 일평생 꿈꿔왔던 일'이라며 국내 정착 후 선조들의 역사를 이어가고 싶다고 소망했다.

### ●어린 시절 유일한 희망 '그림'

문 화백은 1951년 카자흐스탄 우스토베에서 태어나 1975년 카자흐스탄 구 수도 알마티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림은 고려인들에게 고통을 해소하는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문 화백은 "소련이 건재했던 1937년 스탈린은 고려인 혁명화 등의 이유로 20만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동포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도 토굴 움막에서 생활하는 등 힘겨운 삶을 이어갔다"며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불만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강제이주 이후) 소련의 속칭 '국정원'이 밤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분탕자들을 색출해 냈기 때문이다. 그때 유일하게 마음을 표출할 수 있던 게 '그림'이었다. 당시대

지난 14일 만난 고려인 4세 문 빅토르 화가가 조국(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이야기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있다.

에 태어난 나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문 화백은 우스토베와 고려인 최초 정착지 바스토베 마을을 돌아다니며 매일 밤 담벼락에 그림을 그렸다.

그의 그림은 대부분 '혁명'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는 특히 기억나는 것으로 프랑스 대혁명을 그린 시민군 벽화를 꼽았다.

문 화백은 "어머니가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 반대했다. 색칠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 벽화를 본 어머니가 이후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줬다"면서 "어머니는 우리의 뿌리와 증조 할아버지 문이환 선생의 존재에 대해

알려줬다. 더해서 문씨 가문의 시작점이 전남 나주라는 것도 강조했다. 이때부터 고려인 후손으로서 조국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 ●1988년 조국 첫 방문

미술대학 졸업 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한 문 화백은 종종 '조국인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 1988년 한국에서 열린 서울올림픽을 통해 그토록 그리웠던 조국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문 화백은 "올림픽 당시 카자흐스탄 대표 중에 고려인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를 계기로 이듬해 고려인 초청 행사가 열렸고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러시아 등지에 있던 수많은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가게 됐다"며 "꿈에 그리던 한국에 도착하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마치 몇 번 와 본 것 처럼 편안하기도 했다. 평생 이주민으로 살았던 고려인들의 애환이 녹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문 화백은 이후 1994년 한국 문화와 한글 공부에 열정을 쏟았다. 15점을 들고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때는 고향 땅 광주·나주를 찾아 선조들의 묘소를 가보는 등 엄혹했던 지난 역사를 재확인했다. 문 화백은 이 과정에서 '언젠가 이곳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막연한 다짐은 6년 뒤인 2001년, 자신의 딸이 한국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후 자신의 그림을 통해 광주와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던 그는 2018년 광산구청·고려인마을에 국내 정착 의지를 피력했다.

문 화백은 "태어나서 늙을때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지냈지만,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내 고향'이라는 느낌을 강렬히 받았다. 그간 고려인의 역사·문화·인물을 화폭에 담아왔던 만큼 이제는 고향 땅에서 이 작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화백은 1990년대 말까지 국립 고려극장 주임 미술가로 활동하며 고려인 지도자와 동포들의 초상화를 그렸다.

2017년에는 한국에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전시회를 갖고 대표작 '1937 강제이주'를 국내에 헌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10월에는 광주에 '흥범도 장군 초상화'와 추상화 '형상'을 기증하는 등 꾸준히 광주와 연을 이어왔다.

광산구와 고려인마을은 문 화백의 입국을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했으나, 2019년 코로나19가 발생해 국내 정착 절차가 미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무릎 수술 악화 등 건강 이상의 소식이 광주로 전해졌고 고려인 마을은 문 화백을 긴급 초청해 재수술·재활치료를 도왔다. 현재는 상당 부분 호전됐다.

문 화백은 "고려인마을과 광산구에서 흔쾌히 (입국을) 허락해줘 굉장히 감사하다. 선조들의 땅에서 생활하게 돼 너무 행복하다"며 "아픈 곳은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고려인마을에 정착해 그림 작업에 몰두하고자 한다. 이왕이면 조국의 미래세대들에게 강제이주의 아픔을 겪었던 고려인들의 이야기와 그간 갈고뉘었던 화법 등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인마을은 문 화백의 의지를 잇기 위해 그의 작품을 한데 모은 미술관 개관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모금 기간은 내달 말까지다.

글·사진·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 민주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 금융·법률 전문가 개혁적 성향

더불어민주당의 새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사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선임됐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김

교수가 지명됐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선 배경과 관련해 "(김 교수) 은화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원칙주의자적인 개혁적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며 "금융이나 법률, 금융과 관련된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금융 약자들 편에서 개혁적 성향 보여주시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명칭이나 과제, 역할, 구성 이런 건 혁신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그 논의 결과는 지도부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돼 지난 3월까지 임기를 채웠다.

여성 최초 금감원 부원장으로서, 정권 교체기에 임기를 다 채운 바 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시 대표 시절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초 이번 혁신위원장 인사는 김 교수

와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간 2파전 구도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작업을 통해 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한편, 이번 인선은 이태경 다름백년 명예이사장이 지난 5일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다 과거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자진사퇴한 지 열흘만에 이뤄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 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호텔/펜션 학교/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선사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채권 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3. 6. 13. 총사원동의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3. 8. 12.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6월 13일  
유한회사 수목사랑  
청산인 노석  
위와 같이 2023년 6월 16일자 전남일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였습니다.

**광고문의**  
지통 062-519-0710  
팩스 062-519-0709  
全南日報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돈**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받아드립니다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겨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겨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겨문항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